



군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의회

2025. 6. 17.(목) 11:00
소안항일운동기념광장

제34회 소안항일운동 기념 추모제 추모사



완 도 군 의 회

추 모 사

존경하는 애국선열의 유족과 후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해주신 학생 여러분, 학부모,
교사,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입니다.

제34회 소안항일운동기념 추모제와 제16회 전국
항일문예 백일장대회를 맞아, 완도군의회를 대표하여
순국선열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신우철**
완도군수님,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님, **박성규**, **박재선**,
최정욱, **허궁희**, **조영식** 동료의원님, **이성일** 경찰서장님,
반드미트리 우주베키스탄 내무부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오랜 시간 애써 오신
(사)소안항일운동기념사업회 **김광선**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안도는 우리나라 ‘항일의 섬’ 으로, 단일 면(面)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위대한 땅입니다

특히 1909년 당사도 등대 공격 의거는 소안 항일운동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애국정신은 세대를 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 쉬며, 미래를 비추는 소중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함께 열리는 전국 항일문예백일장은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글과 그림, 영상으로 계승하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써 내려가는 시 한 줄, 그려내는 그림 한 점, 제작한 영상 한 편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진심과 정의를 향한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와 열정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내일의 자산입니다.

완도군의회는 소안도의 항일정신을 지역의 자긍심
으로 깊이 새기며, 이 정신이 오늘의 언어로, 후세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뜻을
일상과 미래로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진심
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선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